

에디슨 한인 성당

Our Lady of Mercy Parish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Jesus came and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in like manner the fish.

미사 안내

한국어 주일 미사 오전 11:30

영어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0:00

영어 토요 미사 오후 4:00

평일 미사 (화) 오후 7:00

(수 - 금) 오전 9:00

Website www.edisonkcc.com

Email edisonkcc@gmail.com

성사 및 교리 안내

고백성사 미사 15 분 전

혼인성사 6 개월 전 신부님께 연락

유아세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병자성사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예비자교리 매 주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 주일 오전 10:00 - 11:15

안내봉사

5 월 천상의 지혜 Pr. 6 월 모든 성인의 모후 Pr.

친교봉사

5/5 에디슨

5/12 야고보회

성당 및 사무실 안내

성당 및 The Church of Our Lady of Mercy

사무실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 356-1037

근무시간 화 - 금 오전 10 시 - 오후 3 시

성직자 및 평협회장

주임신부 이담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첸시오

복사

5/5 Aidan Choo, Justin Woo

5/12 Austin Chu, Gina Park

전례 봉사자

일시 5/5

1 독서 백수정 수산나

2 독서 이윤정 프란체스카

신자들의 기도 박락준 베드로

봉헌 박정현, 우승정

성체분배 이재성, 광신규

5/12

맹순영 베로니카

청년회

김동근 사도요한

우성현, 임영진

유용희, 백영숙

오늘의 성가

입 당	135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성 체	170 498	자애로운 예수 예수여 기리리다
봉 헌	216 510	십자가에 제헌되신 주님께 올리는 기도	파견	244	성모의 성월

말씀의 초대 ㉔ 사도들은 신문하는 대사제에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며 부활을 증언한다(제 1 독서) 요한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무궁하기를 비는 소리를 듣는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시고는, 당신 양들을 돌보라고 하신다(복음).

제 1 독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27 ~ 32,40 ~ 41

그 무렵 대사제가 사도들을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 회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 7과 13 ~ 2 7나 참조)



후렴: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 2 독서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㉔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5,11-14

나 요한은 어좌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음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9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겹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컨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는 다음에 예수님께서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 김시영, 최성규의 영혼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 - 김병학(바오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정선(바오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사도, 수도자의 성소의 은총을 구하며 - 성소후원회 - 김경희(수산나)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수랏상 - 임영자(안나), 오경숙(세실리아)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 변태용(요셉) 가족 - 오홍순(카타리나)의 건강을 위하여 - 홍원기(에우세비오) 가족 - 최경삼(안나), 안갑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 - Thomas 와 Kelcie 의 새 가정에 축복을 기도하며 - 가족 - 이나은(클라라), 서채원(아네스) 첫영성체를 축하하며 - 사우스브런스워 구역 - 김승수(안드레아), 박성재(안토니오), 서채원(아네스), 이나은(클라라)의 첫 영성체를 축하하며 - 주일학교 학부모회 일동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943	KCC 감사 헌금	\$ 10,000(익명)	미사 참례자 수	162 명
교무금 (\$1,960)	김현걸(1-4) 김영필(5)	김금자(4) 이요한(3-6)	곽유리안나(5-6) 이계영(3-4)	임문수(5) 서경호(5-6)	우영인(3-4) 성낙순(4) 이경우(4) 오경선(5-6)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 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교무금과 감사헌금은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사무장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소식
◆ 2 차 헌금

- 오늘 미사 중 미 원주민, 아프리카인, 가톨릭 구호사업을 위한 2 차 헌금이 있습니다.

◆ 첫 영성체

- 김승수(안드레아), 박성재(안토니오), 서채원 (아네스), 이나은(클라라) 학생이 오늘 미사 중 첫 영성체를 받습니다.
- 축하와 함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 마더스데이 행사

- 주일학교 학생들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여 5/12 주일 미사 시작 전 성당입구에서 어머님들께 꽃을 달아드립니다.

◆ 2019 성모의 밤 행사

- 일시 : 5 월 18 일(토) 7 시
- 장소 : 성당

◆ 주교님 집전 미사 안내

- 5 월 19 일 Our Lady of Mercy 우리 본당에서 오전 11 시 주교님 집전 미사가 있습니다.
- 당일 오전 8 시, 10 시, 11 시 30 분 미사는 없습니다.
-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신자등록서 배부

- 신자등록서 양식은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배부되고,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5 월 26 일까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2019 Bishop's Annual Appeal

- 아직 2019 년 Bishop's Annual Appeal 금액을 약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된 봉투를 이용하여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2019 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 이며, 4 월 28 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27,093 (목표 금액의 77.4%) 입니다.
- 체크로 납부하실 경우 Diocese of Metuchen - Bishop's Annual Appeal 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2019 OLM Church Parish Communion Breakfast

- 미국 신심단체 Rosary Altar Society 와 Holy Name Society 주관으로 진행되는 Communion Breakfast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6 월 9 일(주일) 9:00-11:00, 친교실
- 티켓 가격 : \$17 (13 세 이상 성인), \$8 (6-12 세 아동)
- 티켓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 San Alfonso's Men's Retreat

- 주제 : "The Call to Holiness"
- 일시 : 9 월 6 일 ~ 8 일
- 장소 : San Alfonso's Retreat House
(755 Ocean avenue Long Branch, NJ07740)
- 참가비 : \$240
- 문의 : Felix Reid (732-259-0979)
Keith Fasanella (732-356-5780)

◆ 임문수(마르코), 임명희(마리스텔라)님의 자제
임서호(토마스)군의 혼례가 5 월 18 일 씨애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영길(그레고리오), 양정자(카타리나)님의 자제
양 앤디군의 혼례가 6 월 1 일 Cliffside 에 있는 Palisadium 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더불어 참석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사목회의

- 일시: 5 월 5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5 월 12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미 신심단체 Holy Name Society Meeting

- 일시: 5 월 14 일(화) 저녁 7 시 30 분
- 장소: 친교실

◆ 전례회의

- 일시: 5 월 19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주교님 방문 미사로 인해 회의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5 월 25 일(토) 오후 6 시, 친교실

◆ 구역모임

- 에디슨
- 일시 및 장소: 5 월 5 일(일) 친교 후, 친교실
- 노스에디슨
- 일시: 5 월 11 일(토) 저녁 7 시
- 장소: 서화철(예레니모) 형제님택
10 Universal Ave. Edison 08820
- 럽거스
- 일시: 5 월 19 일(일) 오후 1 시
- 장소: 최두철(요셉) 형제님택
- 먼로
- 일시: 5 월 19 일(일) 오후 5 시
- 장소: 배인호(스테파노) 형제님 택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요한 21,1- 19 (부활 제 3 주일)

“애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요한 21,5)

“와서 아침을 먹어라.” (요한 21,12)

1.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실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초대를 나눈 체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 15, 16, 17)

2.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하고 물으십니다. 나의 세례명을 대신 넣어서
천천히 세 번 물어보고 느낌을 나누어봅시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17)

3.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대신하는 사랑의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받은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전
한 적이 있나요?

슬픔의 힘 - 박노해 -

울지마, 사랑한 만큼, 슬픈 거니까
울지마, 슬픔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울지마, 네 슬픔이 터져 빛이 될거야.

제자들은 슬펐습니다.
그들이 믿어온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기대해왔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들의 모든 삶과 신념 그리고
신앙을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울었고 슬펐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을 뒤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저 과거의
지나간 사람으로만 남겨 놓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슬퍼합니다.
하지만 슬퍼해도 좋습니다.
그 슬픔이 우리를 하느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이고,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